

아타왈파의 최후¹⁾

잉카 마지막 군주 아타왈파의 생포와 죽음은 잉카 문명, 나아가 안데스 문명이 몰락하고 혹독한 식민지배가 시작된 역사적·상징적 사건이다. 그래서 수많은 신화, 전설, 민담의 소재가 되고 빈번하게 극화되기까지 했다. 이 텍스트 역시 연극 대본에서 추출한 것이다. 볼리비아의 헤수스 라라(1898~1980)가 재구성한 대본이다. 그는 페루의 아르케다스처럼 원주민들 사이에서 성장한 원주민주의자이며 문인으로 또 케추아 언어와 문학 연구가로 일세를 풍미했다. 헤수스 라라는 동포 소설가 마리오 운수에타(Mario Unzueta)의 소설 『계곡』(Valle, 1945)의 연극 묘사를 읽고 아타왈파의 죽음을 다루는 수많은 연극들의 대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추적하다가 1952~1955년 사이에 세계의 케추아어 텍스트를 입수하여, 비교연구 끝에 『비극 아타왈파의 최후』를 1957년 간행했다. 잉카 시대에 연극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또한 오늘날의 관념에서 생각하는 연극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비극 아타왈파의 최후』가 오염이 되지 않은 순수한 작품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아타왈파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다. ‘비극’이라는 명칭은 헤수스 라라가 붙였다. 군주를 비롯한 위대한 인물을 다루는 연극 전통이 잉카 시대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 비극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전략적으로 붙인 것이다. 『비극 아타왈파의 최후』가 스페인 국왕이 피사로를 처형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 이채를 띤다. 스페인인들은 정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복을 기독교와 이교도의 필연적인 싸움으로, 나아가 선/악의 투쟁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아타왈파를 선한 인물로, 피사로를 같은 기독교도들에게도 응징당하는 악의 화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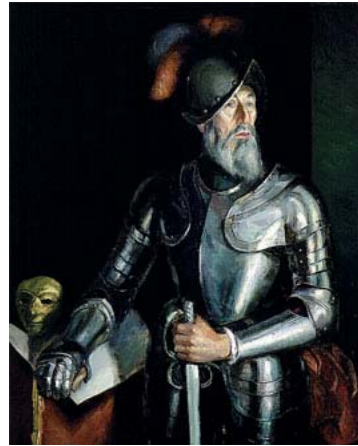
1) Jesús Lara, *Tragedia del fin de Atawallpa*, Buenos Aires, Ediciones del Sol/Los Amigos del Libro, 1989, pp. 129–147.

피사로

(입술을 움직인다)

펠리피요²⁾

유일한 주인님, 아타왈파 잉카시여,
이 강한 사람이 당신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잉카³⁾란 자가 지금까지
해온 말을 다 들어주느라
내 귀가 많이 피곤하구나.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노라.”



프란시스코 피사로

잉카의 저주

털북숭이 적, 위라코차⁴⁾야,
나는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노라,
나는 누군가의 불행을 예언하는
일에도 결코 익숙하지 않느니라.
이 기억할만한 날에
네가 내 목숨을 앗아가는구나.
하지만 나는 네 기억 속에 살아남을 것이니라.
너는 내 핏자국을 영원히

2) 원주민 통역의 이름—울긴이.

3) 잉카는 우리나라에서는 잉카 문명을 가리키지만, 원래는 잉카 왕국의 군주(때로는 왕족)를 뜻한다—울긴이.

4) 위라코차(혹은 비라코차)는 안데스의 주요 신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잉카 8대 군주가 어느 날 위라코차 꿈을 꾸었다. 위라코차는 수염이 덩수룩한 외적의 대대적인 침입을 예고했다. 바로 스페인인들의 모습과 흡사했다. 물론 이 꿈 이야기는 정복 이후에 생겨난 것이 틀림없다. 묘하게도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잉카 8대 군주의 이름을 위라코차로 기억하고 있으며, 외적 스페인인들을 위라코차 자체와 동일시하는 현상도 발생했다—울긴이.

달고 다닐 것이니라.
내 신민들은 너에게
절대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람들 중 하나라도
네가 저지른 짓을 곱게 봐줄 성 싶더냐?
감정 없는 새들도,
도처에서
네게 불행을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쉼 없이 걸어야 할 것이요,
혹독한 역경이 너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며,
내 변함없는 권능을
너는 영원히 저주하게
될 것이다.



위라코차

피사로

(입술을 움직인다)

펠리피요

강력하신 아타왈파 잉카시여,
이 강한 사람이 당신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와 얘기하는 것은
순전히 시간 낭비다.
아마도 나를 홀려
계략에 빠뜨리려는 수작이구나.
이제 이 자의 말은 단 한 마디도
더 듣고 싶지 않다.”

발베르데 신부⁵⁾

(입술을 움직인다)

펠리피요

유일한 주인님, 아타왈파 잉카시여,
이 신중한 사제가 당신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의 잉카여,
새로운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당신의 우상들을 거부하고,
우리의 아버지를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시오.
타오르는 지옥의 불에
영원히
고통 받고 싶지 않으면
성스러운 구원의 세례수를
뿌려달라고 청하시오.
만인의 잉카여,
또한 당신의 죄 전부를
지금 당장 고해하시오.
죄를 씻지 않고
죽는 것은 좋지 않소.
나의 중재로 주 예수그리스도,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주실 것이며,

5) 1532년 11월 16일 피사로가 카하마르카에서 아타왈파를 생포한 날 스페인인들은 전부 매복하고, 오직 발베르데 사제가 나서 아타왈파에게 가톨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스페인 왕실이 마련한 일종의 선전포고 절차였다. 당시 스페인은 가톨릭 수용 의사를 묻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금했다—옴긴이.

인간의 몸을 빈 그분이
 당신께 영원한 영광을 내려주실 것이오.
 만인의 잉카여,
 당신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오.
 성경이 나보다 더 똑똑히
 잘 말해줄 것이오.”



아타왈파

아타왈파
 [성경이 내게]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노라.

발베르데 신부
 (입술을 움직인다)

펠리피요
 이 신중한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들이여,
 이리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이 무지한 자가 신성을 모독했소!
 이 자를 응징하시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오.”

피사로
 (입술을 움직인다)

펠리피요

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신부님,
그렇다면, 이자의 몸 위에
마지막 구원의 성수라도 뿌려주소.”

발베르데 신부

(입술을 움직인다)

펠리피요

이 신중한 사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될 것이니라.”

피사로

(입술을 움직인다)

펠리피요

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엄숙한 마리아,
순결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여왕이시여,
이자의 목을 칠 용기를
제게 내려주소시오.
검둥이 야만인아, 지금 당장
이 강고한 칼로
너를 죽여주마.”



아타왈파의 처형

공주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이 무슨 칭찬벽력이옵니까,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대명천지이셨습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아름다운 황금 야우투를,⁶⁾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적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 존엄함과 당신 권능의 상징인,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야우투를 보며,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우리의 우상이신 잉카 당신을,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을 잊을 가슴은 없습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엄청난 거목이 쓰러졌으니,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 그들의 보호 없이,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이 어인 아픔일지며,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이제 당신을 다시는 볼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태양처럼 빛나던,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이 아름다운 황금 야우투는,

6) 머리에 두르는 잉카 왕의 표식—오키어.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마치 폭풍우 구름처럼,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전부, 전부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고,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산들이 무너지웁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강에는 핏물이 흐르고,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맑은 하늘이,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이제 어떤 손이 잡을 것인지요,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제국의 황금 홀(笏)을,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고귀하고도 씩씩한 어조는,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온 세상을 떨게 했는데.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비길 바 없는 당신의 권능은,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산들마저 말을 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어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나이까.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우리의 눈은 눈물로 가득하옵니다.
 우리의 잉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키스키스⁷⁾

황야의 사슴들이여,
 저 높이 나는 콘도르들이여,
 강과 바위들이여,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울자꾸나.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인님이신 잉카께서
 깊은 비탄 속에
 우리만 남겨두고 가셨구나.
 이제 우리는 어느 그늘을 찾아들 것이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한단 말이나?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 살 것이며,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가?
 아타왈파, 우리의 잉카시여,
 우리도 대지의 내장 속으로
 피난해야 할 듯하옵니다.
 나의 아버지, 잉카 추린이시여,
 무심히 바라만 보지 마시고,
 이리 다가오셔서
 유일한 주인님인 우리의 잉카께로

7) 아타왈파의 주요 장군의 한 사람—웁긴이

우리를 인도해주소서.
 금과 은도 사라졌구나.
 우리의 잉카이시자 유일한 주인님의
 위대함이 종말에 이르렀구나.
 우리의 강력한 잉카께서
 털복숭이 적들의 손에 돌아가셨구나.

공주들

털복숭이 적들,
 네놈들의 그 쇠칼로
 우리 주인님을 죽였구나.
 네놈들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네놈들이 그 쇠통⁸⁾의 타는 불로
 우리의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구나.
 하지만 네놈들도 바로 그 불에
 더 훨훨 타죽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잉카시여, 당신의 그 이름 높은 권능은
 온 세상에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어떻게,
 구름처럼 어두워져 가나йка.

잉카 추린(아타왈파의 아들)

나의 잉카, 나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경험도 없는 어린 저를
 이제 누구의 손에 맡기신 것이옵니까?
 제 걸음을 어디로 옮기란 말씀이시며,

8) 총이나 대포를 가리킴—옮긴이.



잉카 유적지, 삭사와망(Sacsayhuaman)

저더러 어떤 고통을 겪으란 말씀이시며,
 어느 동굴로 추락하라는 말씀이시며,
 어느 그늘에 의지하라는 말씀이시옵니까?
 이제 저는 무엇을 목표로 살란 말씀이시옵니까?
 아, 나의 잉카, 나의 아버지시여,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가 있겠나이까.
 나의 잉카, 나의 유일한 주인님이시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당신의 소중한 말씀은
 종말에 이르렀으며,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위엄이
 덧없이 스러졌습니다.

영원히 승배될 태양,
 세상을 정확시키는 빛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우리 주인님을 앗아가도록
허락하셨나이까?
행여 그분이 당신의 송고한 뜻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서입니까?
행여 당신의 신성한 계율을
지키지 못해서입니까?

아, 가엾은 이내 몸, 이제 나의 아버지는
내 말을 듣지 못하시는구나.
빛을 잃어가는 눈동자는
나를 보지 못하시는구나.
아, 가엾은 이내 몸, 너무나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야 한단 말이더냐?
우리의 잉카를 바라보아라.
그분은 이제 우리를 보지 못하시고,
그분의 숨은 이제 멎고 말았구나.
우리를 정화시키던 태양,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공주들

우리의 주인님 잉카를 여의고,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목이 쓰러진 이 사실이
현실이옵니까 아니면 꿈이옵니까?
아, 은과 금에 눈이 멀어

우리의 잉카를 죽인
 네놈, 피사로야, 위라코차야,
 네놈 역시 처참하게 죽으리라!
 네놈의 그 대단한 힘도
 영원히 사라지리라.
 털북숭이 위라코차야,
 회한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우리의 잉카를 여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찌 한단 말이냐.
 폭풍우 구름처럼
 모든 것이 압몰해져 가는구나.

피사로

에스파냐의 고명하신 주인님이시여,
 폐하의 성심을 집행하고
 돌아왔나이다.
 여기 그 잉카의 목과
 야우투를 대령했나이다.

에스파냐

피사로, 무슨 말이더냐?

피사로

전능하시고 유일한 주인님
 폐하의 공정한 왕명이
 이미 이행되고 완수되었습니다.
 그 무지한 잉카란 자의 머리와

야우투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파냐

피사로, 무슨 말이더냐?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노라!
가서 뭘 어떻게 했다고?
네가 가져온 이 머리는
내 머리카락 같으니라.
내가 언제 너더러
이 잉카를 죽이라고 했더냐?
너는 사형이니라.

피사로

아, 가엾은 이내 몸, 가엾은 이내 몸, 여호와시여!
아, 가엾은 이내 몸, 가엾은 이내 몸,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제가 그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늘을 능멸했나이다,
폐하를 능멸하였나이다.
이 호탕하고 고귀한 잉카를
죽이려고
내 두 발로 스스로 가서
교묘한 술책을 부렸나이다.
이 저주받은 칼로
이 선량한 잉카의
피를 흐르게 만들었나이다.
나에게 닥친 불행한 그날,
저주받을 그날이여.

에스파냐

아, 가엾은 이내 신세, 숭고한 성모시여,
 제 눈앞에 이 무슨 참상이란 말이옵니까!
 믿음도, 정의도
 지복도
 없었더란 말입니까?
 아, 이 분별없는 죄인,
 황금에 눈먼 이 자가
 이제 쓰러지는구나.
 아, 피사로야, 피사로야,
 네가 어찌 비열한 번역자가 되었더냐!
 강탈자가 되려고 태어났더란 말이냐!
 왜 이 잉카의 목을
 자르러 갔더란 말이더냐?
 그의 나라에서 언제나 온화한 말로
 행복과 즐거움,
 지극한 화목 속에서
 수많은 신민을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했더란 말이냐?
 언제나 차분한 그의 어조를
 듣지 못했더란 말이냐?
 그것은 유쾌한 노래 같았느니라.
 황금으로 장식된 그의 궁전을
 너는 보지 못했더란 말이냐?
 그곳은 꽃이 만발한 나무 사이로
 새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잉카를 위해 날이 밝는 곳이었느니라.



피사로의 죽음

황금 용상에 앉아,
신하들에게 존경받던 이였느니라.
전쟁을 일으켜 형제가 형제를
치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는 이였느니라.
호위병은 어디 있느냐?

알마그로⁹⁾

존엄하시고 유일한 주인님,

9) 피사로와 함께 페루 정복에 큰 공을 세운 디에고 데 알마그로(Diego de Almagro)를 가리킴. 두 사람은 동업자였으나 논공행상 과정에서 적이 되었고, 알마그로가 패배해 1538년 피사로 파에게 처형되었다—옮긴이.

여기 당신의 발아래 대령하였나이다.

에스파냐

자, 이 자를 보거라.
이제 숨이 끊어진 듯하구나.

알마그로

존엄하시고 유일한 주인님,
확실히 죽었사옵니다.

에스파냐

그렇다면 저자를 끌어내라.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저자의 식솔들까지 모두 죽일지어다.
그리고 저자의 집도 부수어버릴지니라.
이 파렴치한 무사와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지어다.
짐의 명령이니라.

[강성식 옮김]